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EMA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 2012년 1월 -

소 방 방 재 청
재 난 상 황 실

목 차

1. 1월 기상전망 ····· 1

2. 1월 재난발생현황 분석

(1) 자연재난 ····· 2

(2) 인적재난 ····· 8

(3) 화 재 ····· 16

3. 주요 언론보도사항 ····· 20

4. 재난관리 정보마당

▷ 대설대비 안전행동요령 ····· 27

▷ 화재대비 안전행동요령 ····· 29

▷ 교통사고대비 안전행동요령 ····· 33

※ 참고자료 - 각 종 예 방 활 동 상 황

▷ 자연재난 예방활동 ····· 38

▷ 인적재난 예방활동 ····· 40

▷ 소 방 예방활동 ····· 44

소방방재청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1월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1 기 상 전 망

1월 기상전망

상순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중·하순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고, 서해안과 내륙 산간지방에 많은 눈이 오겠음.

- **상순**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내륙 산간에 많은 눈이 오는 곳도 있겠음.**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 **중순과 하순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추운 날이 있겠으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대륙고기압이 확장할 때 **서해안과 내륙 산간지방에 많은 눈이 오겠음.**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구 분	기 온	강 수 량
1월 상순	평년(-5~4℃)보다 높겠음	평년(5~14㎜)보다 많겠음
1월 중순	평년(-5~3℃)과 비슷하겠음	평년(7~23㎜)과 비슷하겠음
1월 하순	평년(-6~3℃)과 비슷하겠음	평년(3~18㎜)과 비슷하겠음

3개월 기상요약

- **1월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많겠음.**
  - (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기온 변화가 크겠음.
  - (2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내륙 산간에 많은 눈이 오는 곳도 있겠음.
  - (3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내륙 산간에 많은 눈이 오는 곳도 있겠음.

※ 자료출처 : 기상청(2011년 12월 23일 발표)

2 1월 재난발생현황 분석

자연재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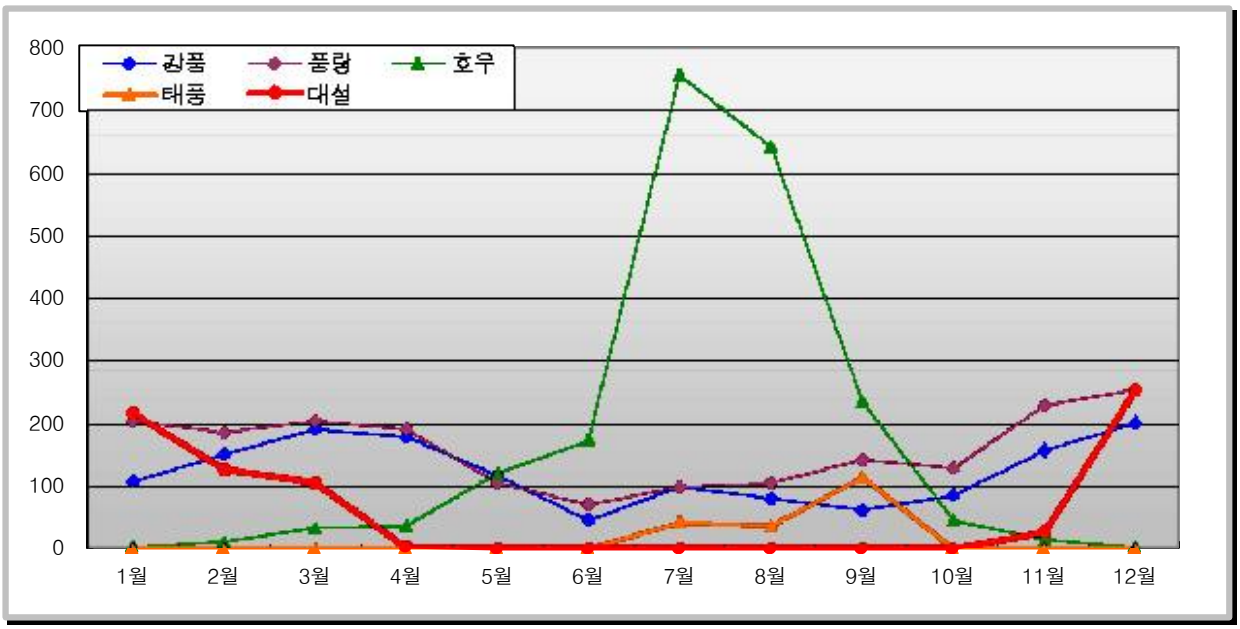
Ⅰ 자연재난 분석

1월은 전국 대부분의 지방이 영하권의 추운 날씨를 보이고, 눈이 많이 내리는 시기로 강설에 의한 인명 및 농·축·수산시설 피해, 시설물 동파 등에 대한 예방대책 추진 필요

기상상황 분석

- 최근 5년('06~'10년)간 호우 등 기상특보 발표현황 분석결과, 대설특보는 12월에 이어 1월에 두 번째로 많이 발표되었으며, 강풍특보는 월평균미만, 풍랑특보는 연중 네 번째로 감소하였음. 호우특보는 12월에 이어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태풍특보는 발표되지 않았음.

【 최근 5년('06 ~'10년)간 기상특보 발표현황 - 기상청 】



1월 발생 자연재해 분석

● 최근 10년('01~'10년)간 월별 자연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 총 133건의 자연재해로 684명의 인명피해와 17조4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 이 중 1월에는 9건의 자연재해로 **4명의 인명**과 **6,939억원**(4.1%)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대부분 폭풍설과 대설에 의한 인명 및 시설피해로 분석되었음.

【 최근 10년('01~'10년)간 월별 자연재해 발생현황 - 재해연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월평균
건수	9	10	14	7	2	9	27	23	13	8	2	9	133	11
인명피해(명)	4	0	1	0	0	11	175	306	161	12	0	14	684	57
재산피해(억원)	6,939	1,549	7,701	173	9	2,500	28,565	68,357	47,838	1,055	49	5,705	170,440	14,203

● 최근 10년간 1월 자연재해 발생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총 9회 중 대설 6회, 폭풍설 1회, 풍랑 2회의 자연재해로 연평균 69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 이 중 가장 컷 던 피해는 '01년 1월 폭풍설로 폭풍을 동반한 많은 눈으로 4명의 인명과 6,59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10~98.2㎝(대관령)의 폭설, 최고 35.7㎧ 의 폭풍)

※ 대 설 : 6회, 인명피해 0명, 재산피해 239억원
폭풍설 : 1회, 인명피해 4명, 재산피해 6,590억원
풍 랑 : 2회, 인명피해 0명, 재산피해 110억원

【 최근 10년('01~'10년)간 1월중 대설피해 발생현황 - 재해연보 】

기 간	원인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억원)	주요 피해지역	비고
합 계	(9회)	4	6,939		
'01.01.07~01.09	폭풍설	4	6,590	서울,인천,대전,경기,강원,충남북,전남북,경남북,제주	
'04.01.16~01.12	대설	-	2	경기	
'05.01.15~01.15	대설	-	35	강원,경북	
'05.01.31~01.31	대설	-	3	광주,전남북,제주	
'07.01.05~01.09	풍랑	-	101	인천,경기,충남,전남북	
'08.01.20~01.23	대설	-	9	강원,충북,경북	
'09.01.23~01.25	대설	-	84	경기,충남북	
'10.01.03~01.08	대설	-	106	인천,경기,강원,충남북,전북,경북	
'10.01.30~02.01	풍랑	-	9	전남	

⇒ 1월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으로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과 강설상황 모니터링 강화 등 사전대응에 중점을 둔 신속한 예·경보 및 상황관리체계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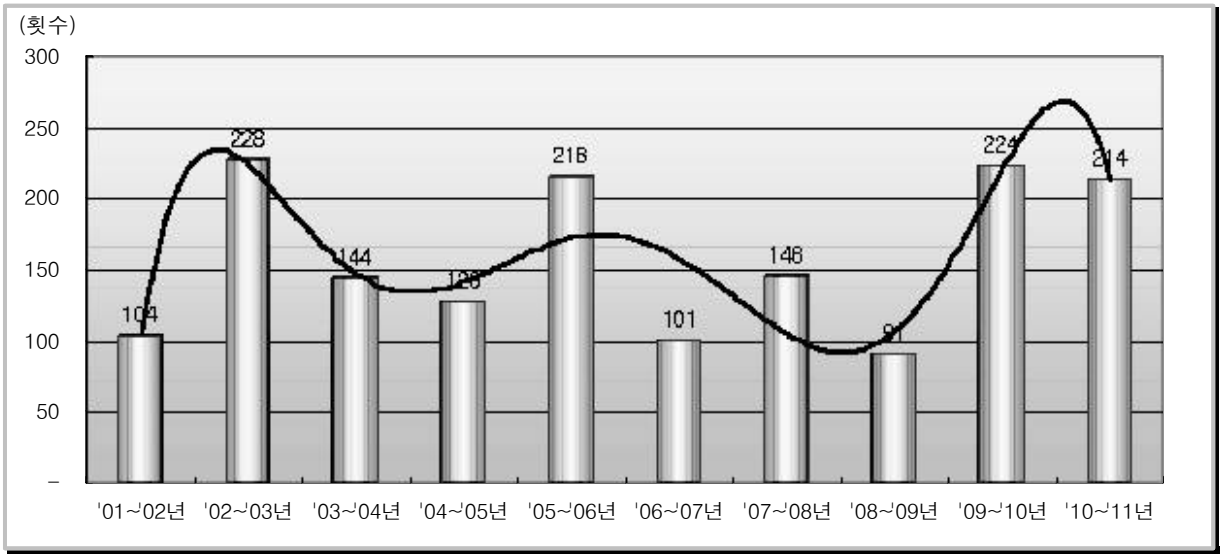
대 설

- 1월에는 기압골과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해안과 강원도 영동 산간 및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음.
- 최근 10년('01~'10년)간 **1월** 중 **총 7회의 대설(폭풍설 포함)피해로 4명**의 **인명피해**와 **6,82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최근 10년('01~'10년)간 월별 대설(폭풍설 포함)피해 발생현황 - 재해연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월평균
건수	7	7	6									7	27	2
인명피해(명)	4											14	18	1
재산피해(억원)	6,829	1,429	7,265									5,633	21,156	1,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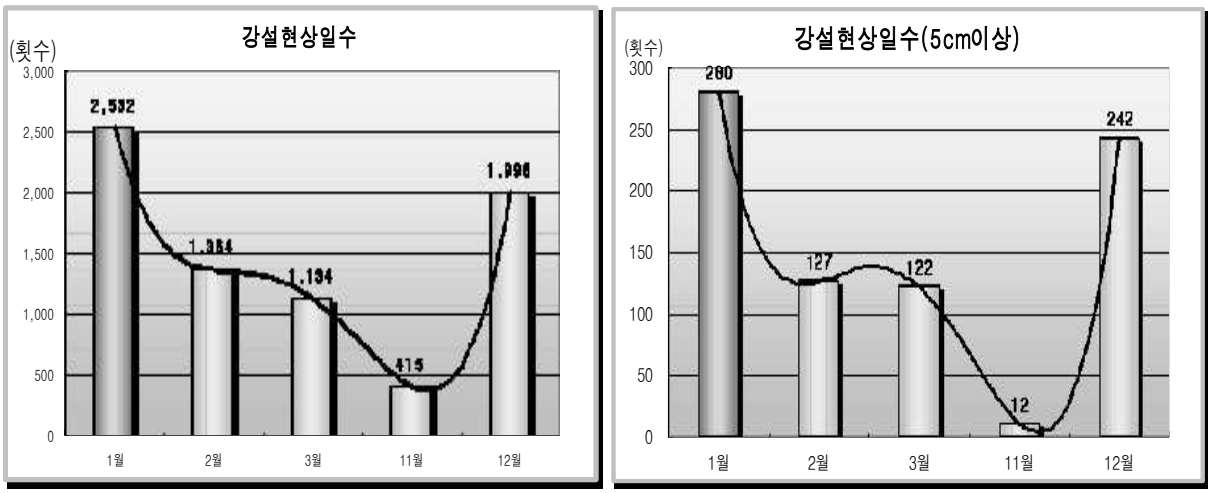
【 최근 10년('01~'10년)간 대설특보 발표횟수 - 기상청 】



- 최근 10년('01~'10년) 전국 주요도시의 월별 강설일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1월 2,532회, 12월 1,996회, 2월 1,364회, 3월 1,134회순으로 강설현상 일수가 많았고, 1월 평균 강설현상일수는 4.2일로 나타남.

- 최근 10년('01~'10년)간 대설특보 기준인 5㎝이상 강설현황을 살펴보면 1월에 가장 많은 280회, 12월 242회, 2월 127회를 기록하였음.

【 최근 10년('01~'10년)간 강설현상일수(60개 주요지점) - 기상청 】



●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 북동기류의 유입 등에 의한 소낙성 눈구름대가 형성되면서 이상 폭설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피해사례로는

- '10. 1. 3 ~ 1. 8 대설피해로 중부지방에 지속적으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집중강설이 내려 인천, 경기, 강원, 충남·북, 전북, 경북 지역에 10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 1.4일 서울에 내린 100년만의 기습폭설(25.8㎝)로 교통대란이 발생하여 신년 첫 출근길 교차로 등지에서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는 등 도심교통이 마비된 사례가 있었다.

※ 1.4 강설량(㎝) : 대관령 31.6, 서울 25.8(1937년 관측이래 최대), 북강릉 25.6, 춘천·이천 23, 인천 22.3, 수원 19.5

- 특히, 1월 중 대설(폭풍설) 피해가 가장 많았던 '01. 1. 7 ~ 1. 9 기간동안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10~98.2㎝(대관령)의 폭설과 폭풍(최고 35.7㎧)이 겹쳐 4명의 인명피해와 6,590억원의 재산피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함.

〈 2001년 1월 대설(폭풍설) 피해 〉

▷ 주택의 경우 눈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주로 스레트 지붕 붕괴(23동 파손)
▷ 축·잠사 시설은 넓은 면적대비 내구성 부족과 천정시설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적설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13,480개소)
▷ 비닐하우스는 지속적인 제설작업 미실시와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붕괴(3,455ha 파손)
※ 적설량(㎝) : 대관령 98.3㎝, 태백 42.5㎝, 추풍령 32.8㎝, 서울 15.6㎝

【 최근 10년('01~'10년)간 1월중 대설(폭풍설 포함)피해 발생현황 - 재해연보 】

기 간	원인	인명피해 (명)	재산피해 (억원)	주요 피해지역	비고
합 계	(7회)	4	6,829		
'01.01.07~01.09	폭풍설	4	6,590	서울,인천,대전,경기,강원,충남북,전남북,경남북,제주	
'04.01.16~01.12	대설	-	2	경기	
'05.01.15~01.15	대설	-	35	강원,경북	
'05.01.31~01.31	대설	-	3	광주,전남북,제주	
'08.01.20~01.23	대설	-	9	강원,충북,경북	
'09.01.23~01.25	대설	-	84	경기,충남북	
'10.01.03~01.08	대설	-	106	인천,경기,강원,충남북,전북,경북	

● 올해 1.3 포항 등 남부지역에 관측이래 최대 폭설이 내렸고, 2.11~14일까지 4일간 강원영동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안지역에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 축사 파손 등 시설피해 뿐만아니라, 국도 7호선 삼척~경북도계구간에 차량이 34시간 동안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함.

※ 강설량(㎝) : 강릉 77.7(100년), 동해 70.2(92년), 포항 28.7(68년), 울산 12.5

⇒ (제설대책)강설 예상시 램프·주요 교차로 등 취약구간 제설장비·인력 전진배치, 제설제 사전살포 및 강설시 등·하교시간 조정, 대중교통 증편 운행, 대중교통 이용 홍보 등 교통소통대책 강화

⇒ (시설피해)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의 눈 쓸어내리기, 차광막 제거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차량 고립시 행동요령 등 대국민 홍보 강화

Ⅱ 중점추진사항

서해안과 동해안지역, 강원영동 등 산간지역의 설해 취약시설물 피해예방대책 추진, 도로별 신속한 도로 제설작업 실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악·고립예상지역 등 안전대책 강화

● 신속한 재난 예·경보 및 상황관리체계 강화

-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11.12.1~'11.3.15) 24시간 상황관리체제 가동
- 기상정보 사전 파악, CCTV 등을 통한 강설 및 제설상황 모니터링 강화
- 대설 사전대비단계부터 비상근무 실시, 사전 대응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에 총력

  ※ 주말·연휴기간 등 취약시간대 사전 비상근무 예고제 시행
- 취약구간 담당자 지정, 강설전 사전 현장배치 등 신속한 제설 대응체계 구축·가동

● 대설피해 경감을 위한 현장 중심의 민·관 공동 대비체제 강화

- 유관기관·민간 자율참여 비상대응 및 구조 협력체계 구축
- 사전예방 및 효율적 응급조치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내집·내점포 앞 눈치우기 등 민간 자율 안전관리 실천운동 전개

● 도로별 원활한 제설 및 수도권 교통소통대책 철저

- 강설대비 24시간 상황관리체제 구축 및 제설장비·인력 등 총력대응
- 램프, 교차로, 고가차로 등 취약구간별 제설 및 교통소통 대책 시행
- 대설특보 발효시 자가용 이용억제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계도

● 농·수·축산시설 피해 경감대책 실행

- 시설별, 지역별 피해원인 분석을 통한 대책 강구
- 시설기준 적정여부, 규격품 사용, 관리실태 등 계도 강화
- 현장 행정지도활동 강화를 통한 자율방재체제 전환 유도

인적재난

Ⅰ 재 난 여 건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 및 겨울방학 중 각종 캠프 증가, 동절기 기온 강하에 따른 가스 등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와 해넘이·해맞이 축제 등 위험요인 증가

- 연말연시 송년·신년행사 등으로 인한 유흥업소,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 이용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요인 증가
- 송년·신년 해넘이·해맞이 행사장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요인 증가 등

※ 주요 해맞이 명소 : 울산 간절곶, 강원 정동진, 제주 성산일출봉, 지리산 천왕봉 등

● 전열기 등 난방기기 취급증가에 따른 화재발생 증가

- 동절기 난방기기, 가스 등 인화성물질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 난방용 전열기 사용증가로 인한 전기화재 증가 우려

● 각종 겨울방학 캠프 실시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 겨울방학 시작과 함께 지자체, 학교, 사설기관 등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는 방학캠프 증가
- 안전성이 미확보된 일부 캠프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사고발생 위험 증가

Ⅱ 인적재난 분석

겨울철 난방기구 및 LPG 등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한파에 따른 시설물 동파, 설명절 연휴기간 중 안전사고 증가 우려

1월중 인적재난 발생현황

- 최근 3년('08~'10년)간 총 850,075건의 인적재난이 발생하였고 1월에는 64,043건(7.5%)이 발생하였음.
- 재난유형별 총 건수 중 1월에 발생한 비율을 비교한 결과, 화재(9.6%), 산불(7.7%), 도로교통(7.2%), 해난(6.5%), 환경오염(6.0%), 붕괴(3.7%) 순으로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남.

【 최근 3년('08~'10년)간 1월 중 인적재난 발생현황 - 재난연감 】

구분	합계	화재	산불	붕괴	폭발	도로교통	환경오염	유도선	해난	기타
건수비율	7.5%	9.6%	7.7%	3.7%	4.8%	7.2%	6.0%	0%	6.5%	6.4%
총 건 수	850,075	138,812	1,241	539	147	674,690	250	4	4,315	30,077
1월건수	64,043	13,315	95	20	7	48,397	15	0	282	1,912

- 그 중 **붕괴, 폭발사고**는 발생건수 대비 인명 및 재산 피해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사고발생 예방활동이 필요함.**

< 1월 발생 주요 인적재난 사례 >

◇ '09.01.15 부산 영도구 상하이노래연습장 화재(사망 8명, 부상 1명)
◇ '08.01.07 경기 이천시 냉동물류창고 화재(사망 40명, 재산피해 72억원)
◇ '07.01.13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5중 추돌(사망 10명)
◇ '02.01.29 전북 군산 개복동 대가주점화재(사망 15명)
◇ '01.01.10 경북 포항 세라프할인매장 화재(사망 5명, 부상 48명)
◇ '01.01.19 전북 순창 용수로터널공사장 붕괴(사망 5명)
◇ '00.01.22 대구 중구 지하철공사장 붕괴(사망 3명, 부상 1명)
◇ '93.01.13 충북 청주시 아파트 화재(사망 28명)

화 재

- 1월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어 난방기구, 전열기 등 화기취급 증가로 화재 발생이 높아지는 달임.

- 최근 3년('08~'10년)간 총 138,81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7,049명(사망 1,181명, 부상 5,868명)과 8,82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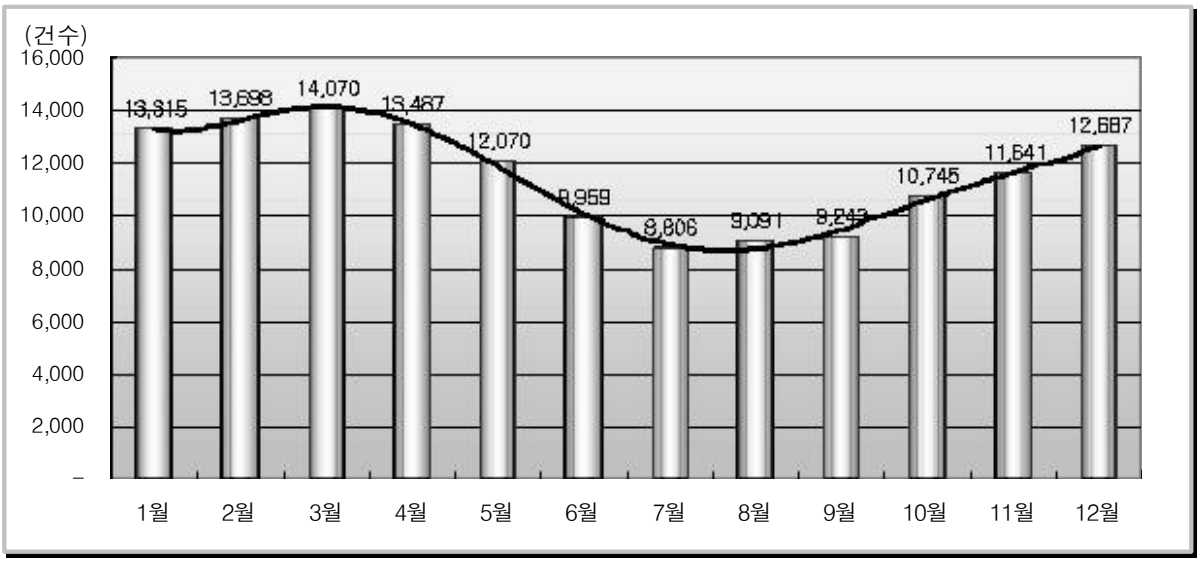
【 최근 3년('08~'10년)간 화재발생현황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연도별	건 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억원)	비 고
		소계	사망	부상		
계	138,812	7,049	1,181	5,868	8,820	
2008년	49,631	2,716	468	2,248	3,747	
2009년	47,318	2,441	409	2,032	2,476	
2010년	41,863	1,892	304	1,588	2,597	

- 최근 3년간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해 보면 계절별로는 겨울, 봄, 가을, 여름 순으로 발생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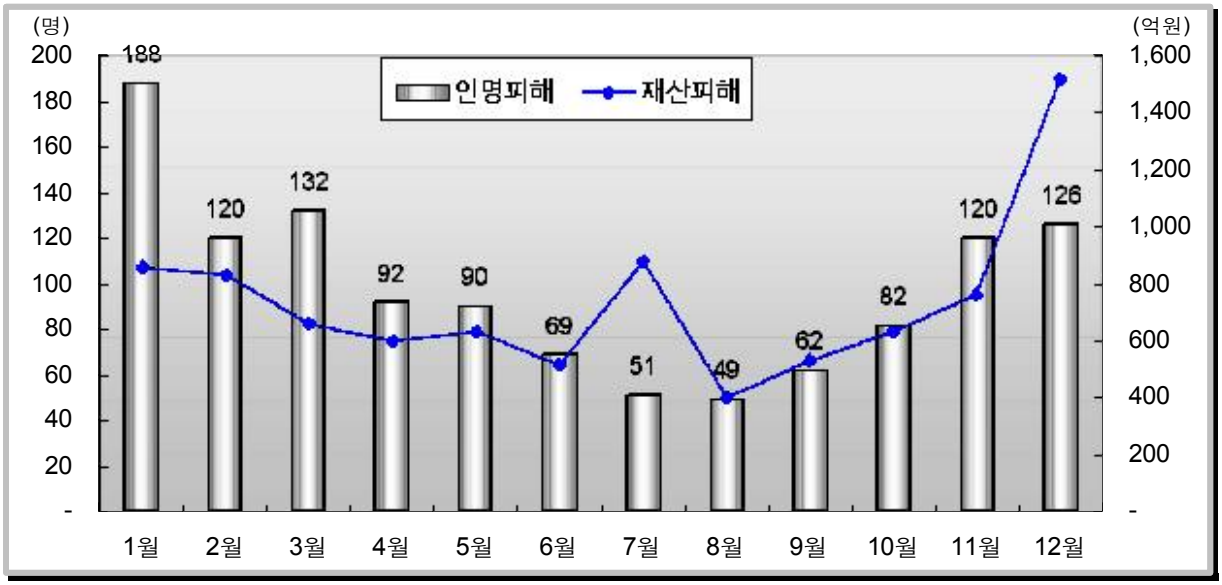
- 월별로는 3월 14,070건(10.1%), 2월 13,698건(9.9%), 4월 13,487건(9.7%), 1월 13,315건(9.6%) 순으로 발생하였고, 1월부터 3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최근 3년('08~'10년) 월별 화재발생 현황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 **인명피해는 1월에 188명(15.9%)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3월 132명(11.2%), 12월 126명(10.7%) 순으로 인명피해가 많았음. 재산피해는 12월 1,520억원(17.2%), 7월 881억원(10.0%) 다음으로 많은 858억원(9.7%)이 발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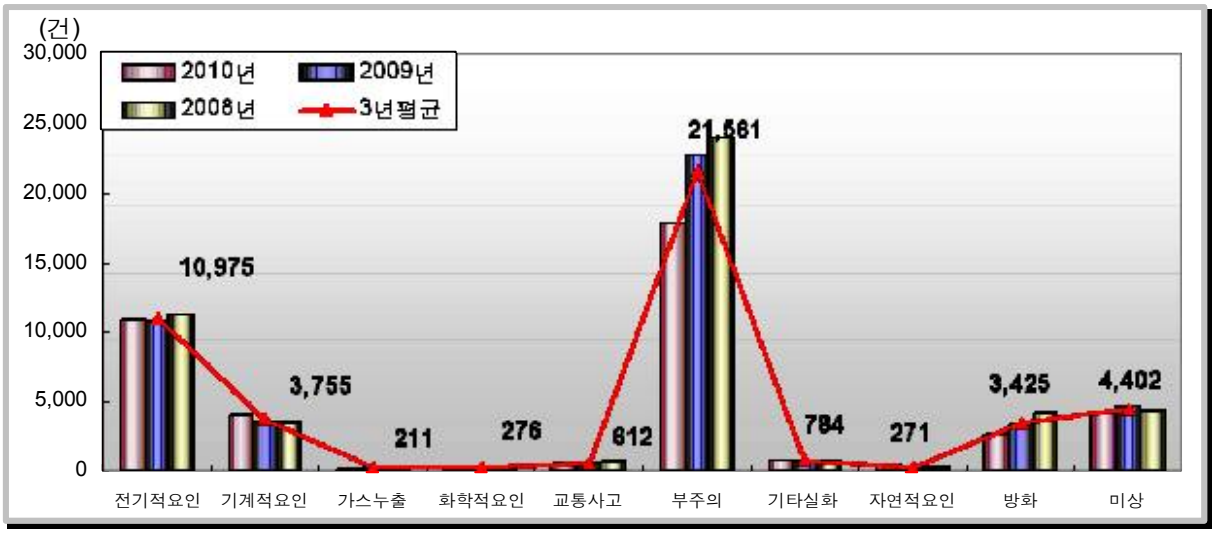
【 최근 3년('08~'10년) 월별 화재피해 현황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 138,812건을 분석한 결과,

- **발화요인별**로는 **부주의**가 **64,682건(46.6%)**으로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32,925건(23.7%), 기계적 요인 11,265건(8.1%) 순으로 발생하여 대부분 부주의에 의한 실화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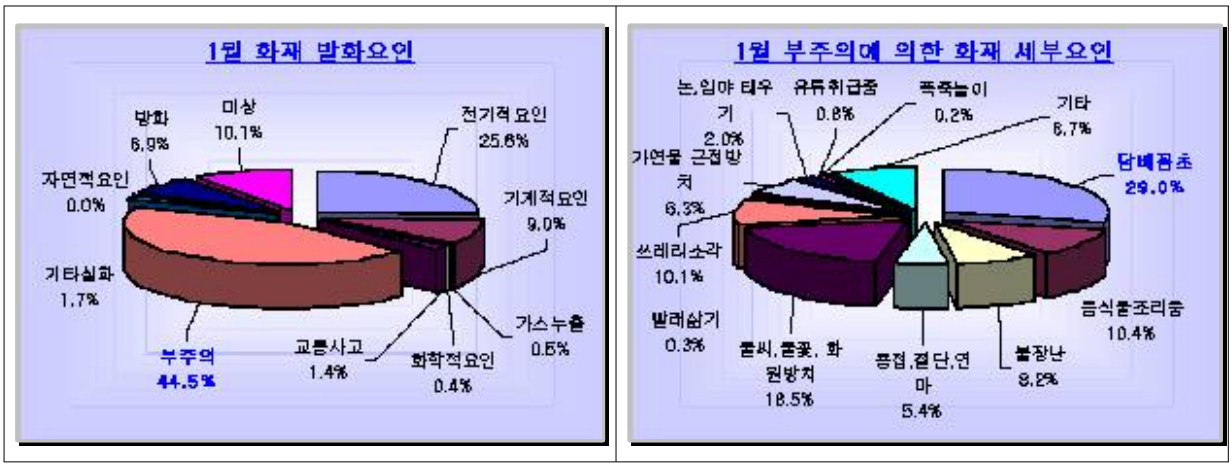
【 최근 3년('08~'10년)간 발화요인별 화재현황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 이 중 1월에 발생한 화재 13,315건의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가 **5,922건(44.5%)**으로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3,407건(25.6%), 기계적 요인 1,202건(9.3%) 순으로 발생하였음.

- 발생요인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부주의에 의한 화재 5,922건**의 **세부요인**을 살펴보면, **담배꽁초에 의한 부주의**가 **1,720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씨·불꽃·화원방치 1,094건(18.5%), 음식물조리중 618건(10.4%), 쓰레기 소각 597건(10.1%), 불장난 488건(8.2%) 순으로 나타나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3년('08~'10년)간 1월 요인별 화재발생현황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 개인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화재 안전수칙 홍보·교육 강화,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시설점검 및 소방력 출동태세 확립

< 1월 발생 주요 화재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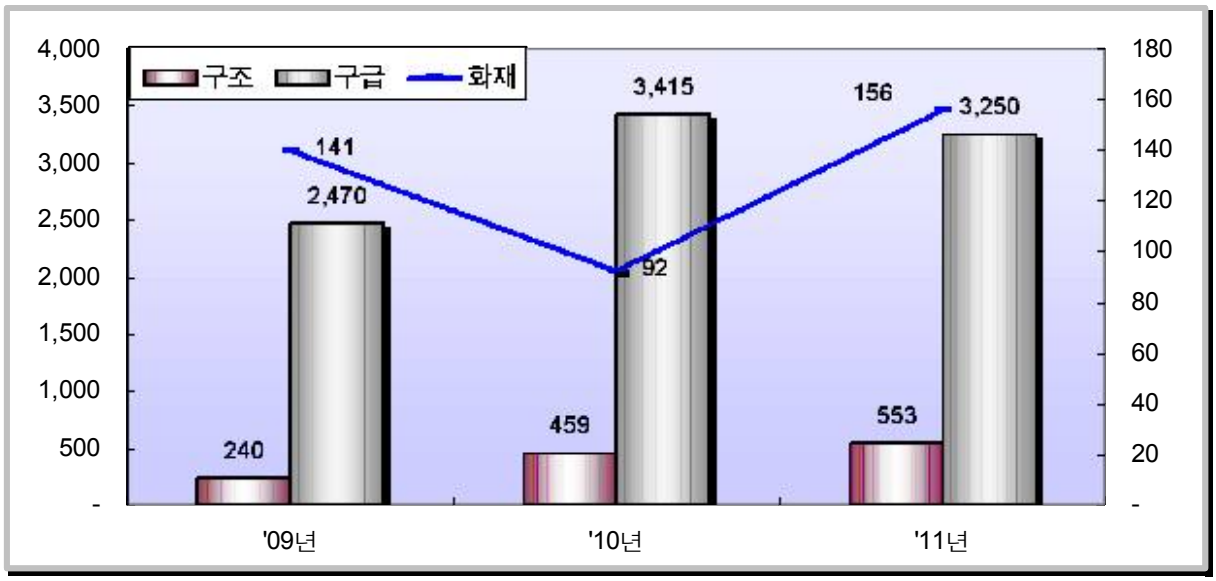
◇ '09.01.15 부산 영도구 상하이노래연습장 화재(사망 8명, 부상 1명)
◇ '08.01.07 경기 이천시 냉동물류창고 화재(사망 40명, 재산피해 72억원)
◇ '02.01.29 전북 군산 개복동 대가주점화재(사망 15명)
◇ '01.01.10 경북 포항 세라프할인매장 화재(사망 5명, 부상 48명)
◇ '93.01.13 충북 청주시 아파트 화재(사망 28명)
◇ '84.01.14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대아호텔 화재(사망 38명, 부상 68명)
◇ '73.01.23 경북 구미시 왕평동 윤성방직 화재(재산피해 156억원)

설 연휴기간 화재 등 안전사고

- 설 연휴기간 들뜬 사회분위기와 화기취급 증가에 따른 주택·상가 등의 장소에서 화재발생, 구조·구급상황 대비가 필요함.
  - 최근 3년('09~'11년)간 설 연휴기간 평균 540건(일 130건)의 화재로 79명의 인명피해(사망 15명, 부상 64명)와 8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 평균 1,700건(일 417건)의 구조출동과 12,124건(일 3,045건)의 구급활동을 벌임.

【 최근 3년('08~'10년)간 설 연휴기간 화재, 구조·구급현황 – 119구조·구급활동사항 】

구 분	화 재					구조 (건)	구급 (건)
	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억원)		
		계	사망	부상			
평균	540	26	5	21	27	1,700	12,124
합계	1,620	79	15	64	81	5,099	36,373
'09년	562	30	11	19	37	958	9,878
'10년	277	12	3	9	16	1,377	10,246
'11년	781	37	1	36	28	2,764	16,249



- 설 연휴기간 발생한 화재 1,620건을 분석한 결과,
  - **발화요인별**로는 **부주의**가 **752건**(51.0%, 일평균 59건)으로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403건(22.7%, 일평균 33건), 기계적 요인 136건(8.1%, 일평균 11건) 순으로 발생하여 **대부분 부주의에 의한 실화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발생요인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부주의에 의한 화재 752건**의 **세부요인**을 살펴보면,

  담배꽁초에 의한 부주의가 214건(28.5%, 일평균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씨·불꽃·화원방치 135건(18.0%, 일평균 11건), 음식물조리중 82건(10.9%, 일평균 7건), 쓰레기 소각 120건(16.0%, 일평균 9건), 불장난 53건(7.0%, 일평균 4건) 순으로 나타나 **담배꽁초에 의한 실화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3년('09~'11년) 대비 설 연휴기간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 비율이 5.8%증가(45.2%→51.0%)하였고, 세부요인 중 쓰레기소각에 의한 비율이 5.5%증가(10.5%→16.0%)한 것으로 나타남.

- 설 연휴기간 구조출동 5,099건을 분석한 결과,

- 화재 779건(15.3%, 일평균 62건), 교통사고 721건(14.1%, 62건), 산악 152건(3.0%, 일평균 12건) 순으로 많이 출동했으며,

- 구급활동 36,373건을 분석한 결과, 질병 19,162건(52.7%, 일평균 1,591건), 사고부상 8,234건(22.6%, 일평균 694건), 교통사고 5,025건(13.8%, 일평균 427건) 순으로 많았음.

- 최근 3년('09~'11년) 대비 설 연휴기간 중 교통사고에 의한 출동 비율이 1.6%증가(12.5%→14.1%)하였고, 구급활동도 2.0%증가(11.8%→13.8%)한 것으로 나타남.

⇒ 설명절을 맞아 쓰레기소각 금지,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시설점검 및 소방력 출동태세 확립 및 귀성·귀경길 교통사고 대비 안전운전수칙 홍보·교육 강화

< 설명절 연휴 주요 사고 사례 >

◇ '11.02.02 부산 남구 주택 분신방화(사망 1명, 부상 2명)
◇ '11.02.04 경남 사천 입산자 실화 산불(1.0㏊ 소실)
◇ '10.02.15 전북 장수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충돌사고(사망 3명, 부상 1명)
◇ '10.02.15 경기 성남 서울공항 앞 도로 버스간 추돌사고(부상 28명)
◇ '09.01.27 충남 아산 자동차부품공장 화재(부상 1명, 재산 8억)
◇ '09.01.27 충남 천안 비닐포장공장 화재(사망 1명, 재산 5억)
◇ '09.01.24 청남 서산 서해안고속도로 11중 추돌사고(부상 14명)
◇ '09.01.25 강원 태백 두문동재 터널 인근 10중 추돌사고(부상 35명)

Ⅲ 중점추진사항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기온 급강하에 따른 화재, 겨울 스포츠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필요

●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 유흥업소,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
- 해맞이 명소 구조·구급차 전진배치, 응급의료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소방력 전진배치 등 연말·연시 특별 경계근무 실시
- 언론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안전한 연말연시 보내기』대국민 안전 캠페인 전개 필요

● 개인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홍보 필요

- 가스폭발, 화재, 추락, 붕괴 등 개인 부주의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겨울철 안전관리 홍보·계도 실시
- 가스 안전관리 요령, 가스 안전사고 상황별 대처요령 등 대국민 홍보
- 시내버스회사별 CNG안전관리 전문인력 1인이상 상주 및 CNG 버스 정비·관리자 등 안전관리 교육 강화

● 각종 겨울방학 캠프 실시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등 관련기관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 추진

● 기온 급강하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홍보 필요

- 가스폭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겨울철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계도 실시
- 비닐하우스, 약식장 등 농·수산시설 한해대책 추진
- 수도관 파열, 빙상사고 등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

화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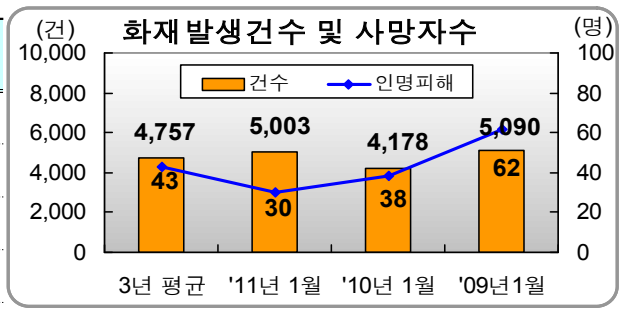
Ⅰ 화 재 분 석

동절기 난방기기 사용증가에 따른 주택 및 사무실 화재, 해넘이·해맞이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활동 중점 추진

● ‘11년 1월에 발생한 화재(5,003건)는 최근 3년간(´09~´11) 1월에 발생한 화재 평균건수(4,757건)에 비해 5.2%(246건) 증가

- 재산피해는 동기간 대비 3.0% 감소(272억원 → 264억원)
- 인명피해는 동기간 대비 43.3% 감소(43명 → 30명)

구 분	건 수	인명피해(사망)	재산피해(억원)
3년평균	4,757	43	272
´11년 01월	5,003	30	264
´10년 01월	4,178	38	269
´09년 01월	5,090	62	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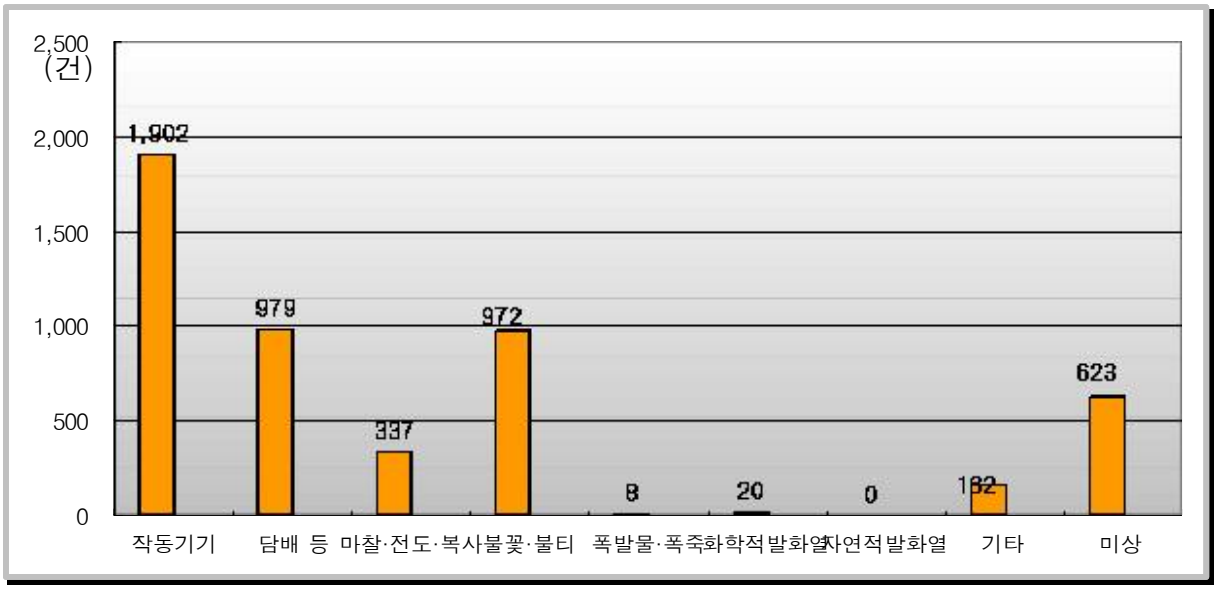
- 화재 장소별로는 비주거(39.1%), 주거(26.6%), 차량·철도(11%), 임야(4.8%) 순으로 발생.

구 분	계	주 거	비주거	차량·철도	위험물·가스제조소등	선박·항공기등	임 야	기 타
‘11.1월(건)	5,003	1,329	1,955	548	3	6	242	920
비율(%)	100%	26.6%	39.1%	11.0%	0.0%	0.1%	4.8%	18.4%

- 1월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총 2,306건 중 담배꽁초 부주의가 29.2%(674건)로 가장 많으며, 불씨·불꽃·화원방치 20.5%(472건), 쓰레기 소각 8.5%(196건), 음식물 조리 8.4%(193건), 가연물 근접방치 8.3%(192건), 용접·절단·연마 5.9%(137건), 불장난 5.4%(125건), 논·임야 태우기 1.0%(23건)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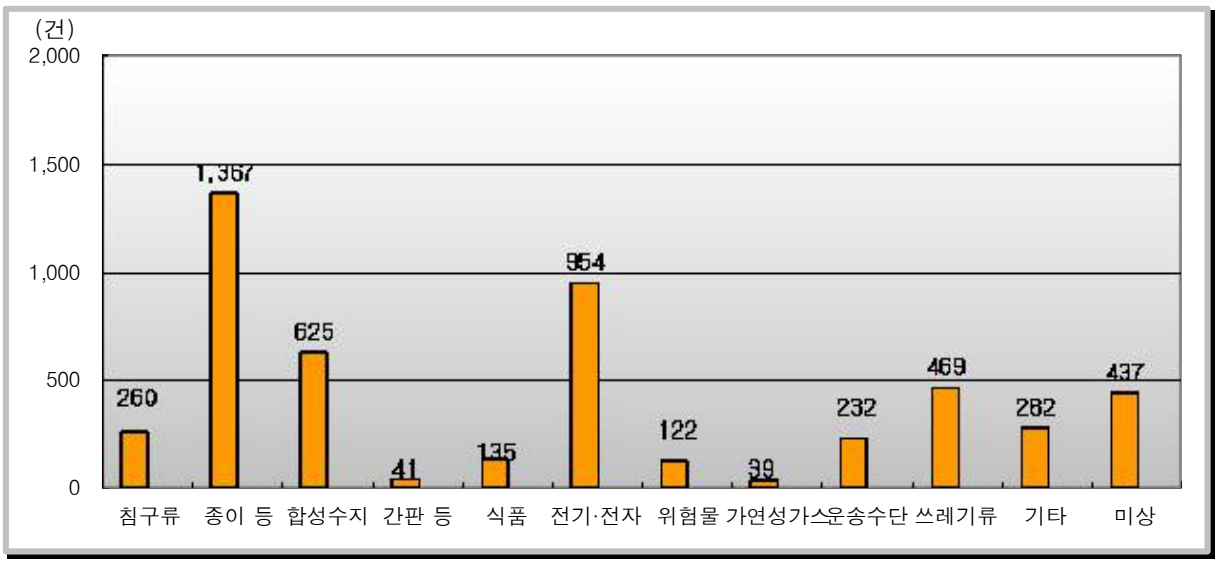
- 1월 발화열원별 화재발생현황은 작동기기 38.0%(1,902건)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담배·라이터불 19.6%(979건), 불꽃·불티 19.4%(972건) 순으로 나타남

【2011년 1월 화재발화열원(건)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1월 최초착화물별 화재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종이·목재 등이 27.3%(1,367건)로써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전기·전자 19.1%(954건), 합성수지 12.5%(62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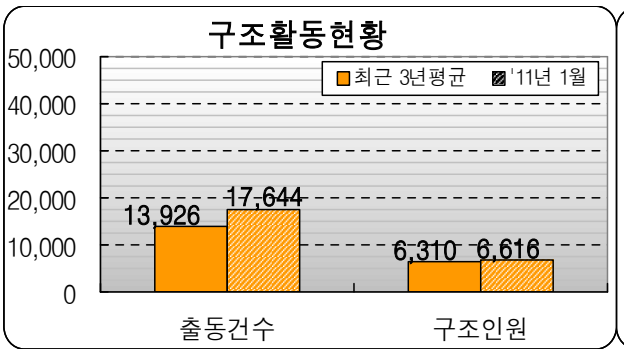
【2011년 1월 화재발생(최초착화물) 현황 -국가화재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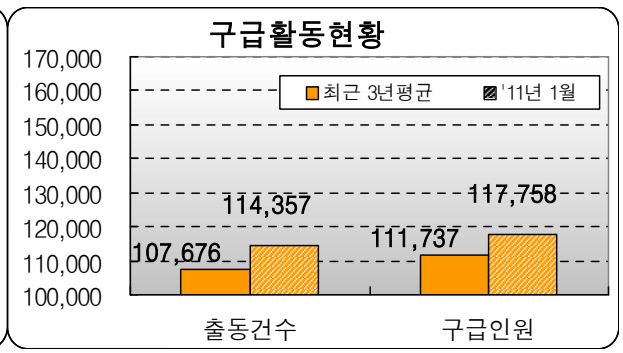


Ⅱ 구조·구급 통계 분석

최근 3년간 구조·구급 활동실적이 환자이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겨울철 화재, 교통사고 등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 구조 : 17,644건/6,616명 구조, 구급 : 114,357건/117,758명 이송
- 최근 3년간('09~'11) 01월중 구조·구급 통계를 분석하면
  - '11년 01월중 구조 출동건수는 최근 3년 월평균(13,926건)보다 26.7%(3,718건) 증가 하였으며
  - 동기간 구급활동은 최근 3년 월평균(107,767건)보다 6.2% (6,681건) 증가되었고,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5.4%(6,021명)증가함





- 1월 인명구조 활동비율은 화재와 교통사고의 구조가 30%를 차지

구 분	계	화 재	교 통	기 계	산 악	기 타
'11.01(건)	17,644	3,083	2,207	188	395	11,771
비율(%)	100	17.48	12.52	1.07	2.18	66.75

- 구급활동은 질병과 교통사고 구급이 65.2%를 차지

구 분	계	질 병	교통사고	사고부상	기 타
'11.01(환자)	117,757	62,852	13,948	28,807	12,150
비율(%)	100	53.37	11.84	24.46	10.33

Ⅲ 중점추진사항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증가로 인한 화재증가와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증가에 따른 예방대책 필요

● 신년 들뜬 사회분위기 대비 다중이용 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 유관기관간 안전협력 체계 강화 및 유흥업소,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순찰 강화
- 신년 행사에 따른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대비 철저

● 동절기 전기 화재 등 예방 대책 필요

- 주택, 공장, 음식점 등 전열기기로 인한 화기 취급 주의가 요구됨
- 재래식 시장의 연탄불 및 석유난로 취급 주의 필요
-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거동 불편자 거주지에 대하여 대형화재 피해예방을 위한 지속적 관심 필요

● 가연성물질 등 취급 및 관리대책 필요

- 난방기구 주변 유류 및 가연성 물질 취급 주의
- 인화성 물질은 필요수량만 반입하고, 구획된 저장소를 마련 분리 보관
- 불연성 물질로 만든 일상용품 개발 필요
- 소규모 영세공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강화

● 취약시기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예방활동 강화

- 화재취약지구 및 다중운집장소에 소방차·119구급대 전진배치
- 주요 화재 취약 대상 현장 확인점검, 심야시간대 기동순찰 강화
- 산불대응자원 총력동원을 통한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강구

3 주요 언론보도 사항

12월 언론보도 사항

이슈보도

-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원조 효과성을 위한 재난복원력 구축 강조(11.30, 뉴시스)
- 불나면 속수무책... 소방차 막는 중앙 분리봉(12.1, SBS)
- 해안 방파제 절반 이상 위험하다 ! (12.1, KBS)
- 강원 또 눈 '최고 30㎝'…올 겨울 폭설 잦다(12.2, SBS 8시뉴스 등)
- 동해안 대지진 위험(12.2, MBC 9시뉴스)
- 추위 피하려다 큰 불…'위험천만' 불법 난방기(12.2, SBS 8시뉴스)
- 부산지방항공청, 산불 진화헬기 안전점검(12.4, KBS 등)
- 끊이지 않는 순직…인력 부족·장비 노후(12.5, KBS 9시뉴스)
- 일기예보 시 전력 상황도 예보한다(12.5, KBS 9시뉴스)
- 항공기 '조류 충돌' 주의보…전국 공항 비상(12.5, KBS 9시뉴스)
- 천리안 위성, 비상재난통신망으로 활용 추진(12.8, KBS뉴스)
- 강풍에 고가 사다리차 '폭삭'…일대 아수라장(12.8, MBC 9시뉴스)
- 긴급차량 길 막으면 과태료 최대 20만원(12.10, KBS)
- 폭설 후유증…눈더미·고드름 위험천만!(12.11, KBS 9시뉴스)
- 중단된 울진 원전, 마모됐다더니 곳곳 균열(12.11, SBS 8시뉴스)
- "승객 항의에 착각" 지하철, 황당한 역주행(12.11, SBS 8시뉴스)
- '도심 속 폭탄' 부실 전신주, 전국 10만 개 넘어(12.12, KBS뉴스 등)
- 당정, 소방관 근무수당 인상하기로(12.13, KBS·YTN 등)
- 울진·고리원전 잇단 가동 중단…주민들 불안(12.14, KBS 9시뉴스 등)
- 무인 소방로봇 첫 선…화재현장 활약 기대(12.14, MBC 9시뉴스)
- 추위에 난방도 없이 붕괴 공포 떨어(12.17, KBS 9시 뉴스)

- 고양이 구하다 순직한 소방관 현충원 못 간다(12.17, MBC 8시뉴스)
- 고층건물 화재 시 더 위험한 곳은 위층(12.19, KBS)
- 소방방재청, 소방차에 양보 안하는 차량, 집중단속(12.20, KBS 뉴스 등)
- 연평도, 대피소 점검…평온 속 긴장감 고조(12.20, KBS 9시뉴스)
- 소방방재청, '소방차 양보 위반' 집중 단속 시작(12.22, KBS)
- 밤새 중부·호남 최고 5㎝ 눈…대설특보 예상(12.23, KBS 9시뉴스 등)
- 서울시, 지난 겨울 동파사고 2만4천건 발생(12.23, MBC뉴스)

자연재난 관련 보도

- KBS, 국토해양 재난방송 실시간 전달(11.30, 디지털타임즈)
- 전라북도, 재해예방사업 재난관리기금 내년 100억원 투입(11.30, 뉴시스)
- 제주도,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11.30, 뉴시스)
- 소방방재청,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시설물 내진보강 활성화(12.1, 메디컬투데이)
- '태풍 피해' 가거도항 방파제 본격 복구 착수(12.1, YTN 등)
- 농림식품부, 2020년까지 기후변화 R&D에 1조원 투입(12.2, 파이낸셜뉴스)
- 서울시, SNS로 시민들의 제설 아이디어 받아…(12.2, 한국일보)
- 소방방재청,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시설물 내진보강 활성화 추진(전자신문 12.3)
- 경기 광주 곤지암천 홍수 방어벽 쌓는다(12.5, 연합뉴스)
- 인천소방안전본부, 12월 폭설·화재 '조심'(12.6, 뉴시스)
- 북한, 세계 9번째로 자연재해에 취약(12.6, 한국경제 등)
- 정부,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대책 9일 발표(12.8, 서울신문)
- 울산시, 폭설 대비 다목적 제설 전용차량 시연회(12.7, 연합뉴스)
- 부천시, 폭설시 공무원 신속 동원 시스템 구축(12.8, 연합뉴스)
- 金총리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 대책 마련 강조"(12.9, 뉴시스)
- 내년 재해예방사업에 5조원 투입…올보다 21% 늘어(12.9, 건설경제)

- 제주시, 곽지포구 재난감시용 CCTV 구축(12.10, 뉴시스)
- 인천 서구, 발전소 온수로 제설 추진(12.12, 서울신문)
- 서울시, 서해안 지역 5곳에 폭설 포착 CCTV 설치(12.14, 국민일보)
- 소방방재청, 국내 LTE 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 국제표준 채택(12.15, 디지털타임스)
-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조건 DMB 6개사 재허가 승인(12.16, 뉴시스)
- 올 겨울 최고추위에 서울 동파사고 잇따라(12.17, 뉴시스)
- 소방방재청, 전국 재난 CCTV 공동활용체계로 '11년 공공정보화 대상 수상(12.19, 전자신문)
- 외교통상부, 필리핀 열대성 폭우 피해 지원 추진(12.19, 공감코리아)
- 재난방송 자동자막송출, 종편·보도채널로 확대 추진(12.19, 국민일보 등)
- 100배 상세해진 새로운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나와(12.19, 매일경제)
- 광주광역시, '제설 긴급행동지침(SOP)' 마련(12.20, YTN 뉴스)
- 농수산부, 둑 높이기 저수지 운영·관리시스템 구축(12.22, 아주경제)
- 서울시 내년 예산, 집중강우 대비 하수관거 정비·확장(12.22, 전자신문)
- 홍제천에 음악이 흐르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12.23, 아시아경제)
- 재난·재해·테러 안전관리 표준안 ISO 22320 나왔다(YTN, 12.24)

인적재난 관련 보도

- 소방방재청, 전국 민방위담당자들 한자리에 모여 발전방안 논의(11.30, 연합뉴스)
- 소방방재청, 대한민국 안전문화는 우리가 만들어요(11.30, 중앙일보 등)
- "겨울산행 주의하세요"…추락 등 안전사고 겨울철에 일어나(이투데이 12.3)
- 소방방재청, 물놀이 안전파수꾼 역할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유공자 표창(12.5, 공감코리아)
- 산업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보급(12.4, 아시아투데이)
- 소방방재청 주최 '11년 재난심리지원 사례 발표대회, 강원도 최우수상(12.6,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경찰청, 학원차 운전자 안전소홀시 20만원 과태료(12.7, KBS)
- "재난징후 정보관리 효과 괜찮네"…국민안전의식 ↑(12.8, 뉴시스)

- 국토해양부, 교통부문 산하기관 회의 긴급 소집(12.9, 연합뉴스)
- 소방방재청, 국민참여 재난위험요인 신고..'700여건' 해결(12.10, 아시아경제)
- 마곡동 천공기 사고, 인부 1명 부상 '한달만에 또…'(12.11, 연합뉴스)
- 작은 부주의가 감김·끼임사고 부른다(12.12, 노컷뉴스)
- 소방방재청, 화생방용 간이대피시설 Test-Bed 현장점검(12.13, 한국경제)
- 소방방재청과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 업무협력(12.14, 아시아경제 등)
- 강추위때 原電 1기만 고장나도 대정전 위기(12.15, 조선일보)
- 해양사고 잇따라…2년새 50% 급증(12.17, YTN 뉴스)
- 출입문 사고에 물난리…지하철 왜 이러나?(12.17, YTN 뉴스)
-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방지 특허출원 증가(12.18, 연합뉴스)
- 소방방재청, 민방위 동원 준비태세 점검회의 개최(12.19, 뉴시스)
- 소방방재청, 지역축제의 성공은 안전관리부터(12.21, 공감코리아)
- 지리산국립공원, 새해맞이 행사 폐지(12.21, 뉴시스)
- 출입문 사고에 물난리…지하철 왜 이러나?(12.17, YTN 뉴스)
- 국토부 "낙단보, 구조안전엔 이상 없다"(12.23, 연합뉴스)

소방 관련 보도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 활성화 정책자문회의 실시(12.1, 뉴시스)
- 부산시 소방본부, 소방차 길 터주기 대대적 캠페인(12.1, 뉴시스)
- 소방방재청,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소방방재 12.3)
- 119응급구조사 육성·확보대책 필요(뉴시스 12.3)
- 화재진압 순직 소방관 오늘 영결식...(12.5, YTN·동아일보 등)
- 소방방재청·전국의용소방대, 「2011 한마음 다짐대회」 개최(12.5, 소방방재신문)
- 긴급 출동 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과태료 최대 20만원(12.5, YTN뉴스 등)
-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겨울철 사고 예방 왕도 없다'(12.6, 이투데이)

- 한나라당, “소방관 근무여건 개선 추진해야”(12.6, 연합뉴스)
- 소방방재청, 목숨을 건 희생정신...‘영웅소방관’ 8명 탄생(12.7, 매일경제 등)
- 인천시, 인천 도서지역 6개 섬에 구급차 신규 배치(12.7, YTN)
- 화재예방 캠페인 나선 소방방재청장(12.8, 뉴시스)
- 소방방재청, 순직사고 뚝! 더 이상의 안전사고는 없다(12.9, 머니투데이)
- 한나라당, 소방관 근무·처우개선 대책 마련(12.9, 조선일보)
- ‘소방-구급차에 길 안 터주면 과태료’ 시행 첫날(12.10, 동아일보)
- 소방방재청, 안전 이것만은 꼭! 전열기 등 화재관리 주의(12.10, 서울신문)
- 2012년 신규 주택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12.11, 뉴시스)
-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 “2011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상 수상(12.12, 공감코리아)
- 제주도, 전통사찰에 인공지능 방재시스템 구축(12.13, 뉴시스)
- 소방방재청, 소방안전관리자 처우개선을 위한 소방포럼 개최(12.14, 뉴스와이어)
- 소방방재청, 아마추어무선연맹과 MOU 체결(12.15, 연합뉴스)
- 경찰병원·군병원 있는데 소방관병원만 건립 안 되는 이유는?(12.15, 메디컬투데이)
- 닥터헬기, 고속도 인근에 이착륙장 대거 확보(12.15, 아주경제)
- 부산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효과 ‘톡톡’, 화재시 안전대피 유도(12.15, 세계일보)
-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대형사고 대비한 장비확충 시급(12.16, 동아일보)
- 소방방재청,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요건 국민중심 변경(12.16, 소방방재신문)
- 소방방재청, 안전정보, 성탄장식 꼬인전선 화재위험(12.16, 조선일보)
- 소방방재청, 피트공간 대체 소화기구 설치기준 지침 시달(12.18, 소방방재신문)
- 소방방재청장, 일선 소방관서 현장점검(12.20, 연합뉴스)
- 경기도, 최첨단 무인 방수로봇 시연회 개최(12.20, 뉴시스)
- 전남 퇴직소방관, 119 지킴이로 다시 뭉쳐(12.20, 연합뉴스)
- 소방방재청, 소방용품 제조업체 간담회 개최(12.21, 아시아경제 등)
- 행안부장관, “소방관 근무여건 반드시 개선할 것”(12.21, 소방방재신문 등)

※ 작년('11년) 1월 주요 언론보도 사항

- 기록적 폭설‥'무너지고 전복되고' 피해속출(1.1 MBC)
- 제주 한라산 70cm 폭설…'하늘길·뱃길'막혀(1.1 KBS)
- 전세계 기록적 폭설·한파원인 북국 고온이 찬공기 밀어낸 탓(1.3 동아,한국)
- 구제역, 태백산맥 넘어 영동으로…AI는 경남까지(1.3 국민일보)
- 호남, 연이은 한파·폭설 이어질 듯(1.3 중앙일보)
- 올겨울 한파 주범은 '북극 고온현상'(1.3 국민일보)
- 이달 내내 한파·폭설 이어질 듯(1.3 중앙일보)
- 난방기구 화재원인 1위, 다름아닌 전기히터(1.4 MBC,SBS)
- 포항 60여년 만에 최대 폭설(1.4 매일경제)
- 해안가 '돌발해일', 24시간 감시한다(1.4 KBS)
- 홍수·폭설 기상이변 주범은 라니냐(1.4 연합뉴스)
- 한반도 40년새 집중호우 67%·폭염 15% 늘었다(1.5 동아일보)
- 69년만의 최대 폭설…항공·대중교통·물류 '올스톱'(1.5 조선일보)
- 폭설에 무너지고 막히고, 피해속출(1.5 KBS,MBC)
- 30~49층 '준초고층'건물도 피난전용 승강기 설치해야(1.6 매일경제)
- 소방방재청, 전남·경북에 재난지원금 20억원 지원(1.7 YTN,아시아,아주,건설)
- 울릉도 2주째 눈… 뱃길 끊겨 주민 고립(1.8 KBS)
- 본격 스키시즌…스키사고 연 1만2천건(1.8 KBS)
- 도심빌딩에 10cm 고드름…소방관 출동 '진땀'(1.8 MBC)
- 주행중 차량화재, 냉각수 점검하세요(1.10 MBC)
- 올 겨울 '30한 10온'(1.11 중앙일보)
- 눈 온 뒤 강추위‥거리 '빙판길'(1.11 MBC)
- 16층이상 건물 피난층 설치 의무화(1.11 서울신문)
- 서울 119 출동시간 평균 9.6분(1.11 한국일보)
- 응급현장서 심폐소생술 포기하지 말아야(1.12 세계일보)
- 가뭄이던 곳엔 '폭우' 눈 구경 힘든 곳엔 '폭설'(1.12 SBS)
- AI도 최악으로…가축 매몰지 2259곳 달해(1.13 국민일보)
- 제주 해역서 규모 5.3 지진 남부지방 '흔들'(1.13 KBS)
- 이상기후, 최악의 '남방진동' 때문(1.13 MBC)
- 연평도 피해주민 33가구 임시주택 입주(1.14 YTN)
- 온난화의 역설…되레 지구촌 한파 불러(1.14 중앙일보)

- 지구촌 지난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1.14 세계일보)
- 부상 소방관은 3년만 아파라?(1.14 동아일보)
- 한파 속 '고드름 제거 대작전'(1.14 KBS,MBC)
- 칼바람도 피로도 느낄 새 없다…방역전쟁(1.15 SBS)
- 주말 '한파' 절정…모레 서울 영하 16도(1.15 KBS)
- 강릉 인부 4명 사망,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극(1.15 MBC,SBS)
- 소방방재청, 구제역·AI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1.17 매경,노컷)
- 호남 최고 20㎝ 큰 눈 폭설 피해 속출(1.17 KBS)
- 강도 바다도 모두 얼었다 서해바다 '유빙' 동동(1.17 MBC)
- 체감온도 -40 북극이 따로없다(1.17 국민일보)
- 얼고 터지고 서울 10년만에 -17.8도(1.17 서울신문)
- 전력대란 '초비상' 공장가동 차질 우려(1.17 한국경제)
- 서울 상수도 동파 이틀새 7000건... 찜질방선 번호표 있어야 식사(1.18 조선일보)
- 한반도 덮친 '북극 테러' 서울이 모스크바보다 추웠다(1.18 중앙일보)
- 소방방재청, 유엔 태풍위 '킨타나상' 수상(1.18 각신문사)
- 수도관 녹이려다 화재, '직접 불 쬐기 금지'(1.18 MBC)
- 작년 빙판길 넘어짐 재해 전년보다 4배 많은 1885명(1.18 파이낸셜)
-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화재·참사 부른다(1.19 YTN)
- 보험가입 주택 세입자에도 풍수해 피해 보상(1.19 연합,세계)
- 강추위 속 겨울철 수난구조 대작전(1.19 KBS)
- "바쁘다 바빠" 한파에 더 바빠진 구조대원(1.20 MBC)
-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이 최선(1.20 KBS)
- 불어나는 '유빙' 갯벌 생태계 붕괴 우려(1.20 KBS)
- 지구촌 기상이변 북극한기와 라니냐가 원인(1.20 YTN)
- 소외층에 화재경보기·소화기 보급 앞장(1.20 한국일보)
- 스키장 리프트 멈춰 탑승객 공중에서 '덜덜'(1.21 MBC,KBS)
- 기록적 동파에 강도 꽁꽁‥이름값 한 '대한 추위'(1.21 SBS)
- 겨울철 등산 '동상 조심하세요'(1.21 MBC,KBS,SBS)
- 추운 날씨 등산길…"동상 조심하세요"(1.22 파이낸셜)
- 떨어지면 큰일, 소방관이 12m 고드름 제거(1.22 조선일보)
- 중부 최고 18㎝ 눈 출근길 빙판 조심(1.24 조선)
- 소방장비 노후 위험천만…목숨건 소방관들(1.25 KBS,연합,중앙)

4 재난관리 정보마당

대설 대비 행동요령

대설대비 행동요령

1. 가정에서는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운다.
- 내 집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한다.
-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삼간다.
- 차량, 대문, 지붕 및 옥상 위에 쌓인 눈을 치운다.
- 낡은 가옥은 안전 점검을 하여 붕괴 사고를 예방한다.
- 고립 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2. 직장에서는

-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귀가한다.
- 출·퇴근 시에는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수단을 이용한다.
- 직장 주변의 눈은 그 직장 직원이 치운다.
- 직장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한다.

3. 농촌·산간에서는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 시설은 받침대 보강 또는 비닐 찢기 등으로 보호한다.

※ 눈이 20㎝ 정도 쌓이면 전깃줄이 끊어지고, 소나무 가지가 부러진다.



- 비닐 찢기 작업 시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한다.
- 비닐하우스에 친 차광막 등은 사전에 제거하여 피해를 줄인다.
- 작물을 재배하자 않는 빈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낸다.
- 고립 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4. 해안에서는

- 각종 선박 등 대피, 입출항 통제 및 결박 조치를 한다.
- 수산 증· 양식 시설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한다.
- 주민, 낚시꾼, 행락객 등 해안 접근을 막는다.
- 해안도로 운행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안전장구 부착 후 통행한다.

5. 보행자는

-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한다.
- 외출 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한다.
-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 장갑을 착용한다.
-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삼간다.
- 건널목(횡단보도)을 건널 때에는 차량이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진입한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 야간 보행은 매우 위험하므로 일찍 귀가한다.
- 차도로 나와서 차량에 승차하지 않는다.

6. 차량 운전자는

- 자가용 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수단을 이용한다.
- 고속도로 진입을 자제하고, 국도 등을 이용한다.

대설로 인한 차량 고립 시 행동 요령

1. 출발 전 기상 정보와 목적지까지 우회도로를 미리 파악하고 월동 장비와 연료, 식음료 등을 사전에 준비한다.
2. 고립· 정체 시에는 될 수 있으면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라디오 및 휴대전화기 재난문자방송 등을 통하여 교통상황과 행동요령을 파악한 후 행동한다.
3. 부득이 차량에서 이탈할 때는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두고 대피한다.
4. 인근에 가옥이나 휴게소 등이 있으면 응급환자 및 노인, 어린이 승객을 우선 대피시킨다.
5. 담요나 두꺼운 옷 등을 걸쳐 체온을 유지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인다.
6. 차량 히터 작동 시에는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자주 열거나 조금 열어둔다.
7. 수시로 차량 주변의 눈을 치워 배기관(머플러)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 차량 출발이 쉽도록 한다.
8. 잠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동승자가 있는 경우 교대로 자되 한 사람은 항상 주위 상황을 살핀다.
9. 제설 작업 차량이나 구급차의 진입을 위하여 갓길에 주· 정차하지 않는다.

화재 대비 안전행동요령

□ 화재가 발생했나요?

1. 화재 시 이렇게 대피합시다.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립시다.
○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시다.
○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합시다.
○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시다.
○ 낮은 자세로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대피합시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보세요.
  ► 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읍시다.
○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시다.
○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 다른 출구가 없으면 구조대원이 구해줄 때까지 기다립시다.
  ►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읍시다(물을 적시면 더욱 좋습니다).
○ 연기가 많을 때 주의사항 입니다.
  ► 연기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습니다.
  ►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고 가지 않도록 합시다.
  ►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어 주세요.

2. 소화기는 이렇게 사용 하세요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시다.
○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시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시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3. 화재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 침착하게 전화 119번을 누릅니다.
○ 불이 난 것을 말합니다.
○ 화재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예요).
○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 공중전화는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돈을 넣지 않아도 긴급신고(119, 112 등)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않 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
○ 장난전화를 하지 맙시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 지하철 화재가 발생했나요?

○ 노약자 · 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합시다.
○ 여유가 있다면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끕시다.
○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상용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고, 망치가 없으면 소화기로 유리창을 깹시다.

< 수동으로 문을 여는 요령 >

① 출입문 쪽 의자 옆의 아래에 있는 조그만 뚜껑을 여세요.
② 뚜껑 속의 비상 코크를 잡아당기고, 공기 빠지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3~10초간 기다립니다.
③ 공기가 빠진 후 손으로 출입문을 여세요.

○ 코와 입을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합시다.
○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는 벽을 짚으면서 나가거나 시각장애인 안내용 보도블럭을 따라 나갑시다.
○ 지상으로 대피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대피요원의 안내에 따라 철로를 이용하여 대피합시다.
○ 가능하다면 소화전을 이용하여 불을 끕시다.

< 소 화 전 사 용 요 령 >

① 소화전함 상부의 기동용 버튼 또는 발신기 버튼을 누릅니다.
② 한 사람은 소화전함 내 노즐과 호스를 꺼내 불이 난 곳으로 향합니다.
③ 다른 사람은 호스의 접힌 부분을 펴주고 노즐을 가지고 간 사람이 물 뿌릴 준비가 되었으면 소화전함 내 개폐밸브를 돌려 개방합니다.
④ 노즐을 잡고 불이 타고 있는 곳으로 물을 뿌립니다.

□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나요?

1.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웁시다.
○ 담뱃불은 꼭 끄고, 확인 후 버립시다.
○ 전기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전기를 차단하고 전문가를 불러 점검을 받읍시다.
○ 전기코드가 부분적으로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진 경우에는 교체합시다.
○ 바닥이나 벽으로 연장한 전선은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전기 용량에 맞는 전선을 사용합시다.
○ 전열기는 벽이나 탈 수 있는 물품 주위에 두지 맙시다.
○ 전기기구 관리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퇴근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코드를 뽑도록 하고 매일 전기기구를 확인하도록 합시다.
○ 비상구에는 빈 박스, 쓰레기 등 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맙시다.

2. 화재 발생 시 이렇게 합시다.

○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소방서에 바로 신고합시다.
○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하며 탈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모두 닫읍시다.
○ 연기가 가득한 장소를 지날 때에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피합시다.
○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이용합시다.
○ 건물 밖으로 빠져 나오면 건물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모든 인원이 탈출하였는지 확인합시다.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소방관에게 인원수와 최종적으로 확인된 위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맙시다.
○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립시다.
○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 주위에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쉬세요.
○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립시다.
○ 엘리베이터 이용은 하지 맙시다.
○ 특히, 장애인과 같이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비상시 도움을 줄 동료를 반드시 지정해 둡시다.

□ 지하상가에서는 화재 안전수칙을……

○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자체점검을 철저히 합시다.
○ 평소에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합시다.
○ 전기시설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무질서하게 전기배선을 하지 맙시다.
○ 중앙공급식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이동식난로를 사용하지 맙시다.
○ 화재 시 연소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난·불연 내장재 사용을 확대하고, 자동방화셔터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합시다.
○ 대형시장 건물 등에서는 화재발생시 초기에 자동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를 잘 관리합시다.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운전 요령

□ 안개길 운전

▷ 안개가 짙은 곳을 운행할 때에는 감속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커브길이나 구부러진 길 등에서 위험에 직면했을 때에는 경음기를 울려서 자신이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안개등이나 전조등을 켜서 전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른 아침 짙은 안개가 끼었을 때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자기 바로 앞에 달리는 차를 기준 삼아 뒤따라 달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 빗길 운전

▷ 빗길 운전 시에는 상점 옆이나 보행자 옆을 통과할 때에는 속도를 낮추어서 흙탕물이 튀기지 않도록 하고, 낮에도 어두울 때는 전조등을 켠다.

▷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아스팔트 도로 표면은 흙먼지가 묻어 있어서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특히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조심해야 한다.

▷ 비가 오는 날은 시야가 나쁠 뿐만 아니라 노면이 미끄럽고 정지거리가 길어지므로 맑은 날보다 속도를 20% 정도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한다.

▷ 급출발, 급핸들 조작, 급브레이크조작 등은 미끄러짐이나 전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엔진제동장치(엔진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는 등 기본적인 운전방법을 잘 지킨다.

▷ 노면 레일이나 공사현장의 철판, 맨홀 뚜껑 위 등은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피하고, 부득이 그 위를 통과할 때는 사전에 속도를 낮추어 천천히 통과해야 하며, 절대로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

▷ 물이 깊게 고인 곳을 지나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피해서 통과한다. 부득이 통과할 때에는 정지하지 말고 저속으로 통과한 다음 즉시 제동장치 테스트를 하고, 만일 제동장치 상태가 나쁘면 제동장치 페달을 여러 번 밟아 제동장치 슈의 라이닝을 말려야 한다. 완전한 상태가 될 때까지는 속도를 내지 않아야 한다.

□ 수막(Hydroplanning)현상

▷ 폭우 등 때문에 주행 노면에 10mm 정도의 물이 계속해서 고이는 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면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생겨 물 위에서 수상 스키를 타는 것 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수막현상이라 한다.

▷ 이와 같은 수막현상은 보통 90km/h 정도의 속도에서 발생하나, 타이어가 마모되었을 때에는 그보다 느린 속도에서도 발생한다.

▷ 수막현상을 방지하려면 저속운전을 하거나 타이어의 공기압을 높게 하고, 핸들이나 제동장치(브레이크)를 함부로 조작하지 않도록 한다.

□ 눈길이나 빙판길 운전

▷ 눈길이나 빙판길을 통행할 때에는 미리 눈길용 타이어를 끼우거나 타이어에 체인을 감아야 한다.

▷ 차가 방향을 잃고 앞뒤나 옆으로 미끄러지는 일이 많으므로 핸들이나 제동장치(브레이크) 조작은 신중히 하도록 하며, 급출발·급제동·급 핸들 조작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한다.

▷ 가능하면 앞차가 지나간 바퀴 자국을 따라 통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 언덕길을 오를 때에는 오르기 직전에 1단이나 2단의 저속 기어로 변속한 후 중간에 다시 변속하거나 정지함이 없이 오르도록 해야 한다.

▷ 반드시 감속과 함께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 야간 운전 시에 앞차의 미등이나 제동 등 불빛의 노면 반사가 조금 밝다는 느낌이 들면 경계심을 가지고 그 지점에서 조심한다.

▷ 야간 운전 시에 앞차의 미등이나 제동 등 불빛의 움직임이 그 차의 미끄러짐 때문이라는 느낌이 들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

□ 야간운전

▷ 장거리 야간 운전을 할 때에는 사전에 운전계획을 세운다.

▷ 중앙선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주행한다.

▷ 도로의 상태나 차로 등을 확인하면서 주행한다.

▷ 밤에는 신경이 피로해져서 졸음이 오기 쉬운데, 이때에는 곧바로 운전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로 운전을 한다.

▷ 시야가 나쁜 교차로에 진입할 때나 커브길을 돌 때에는 전조등을 아래위로 번갈아 비추어 자기 차가 접근하고 있음을 알린다.

▷ 앞차를 따라 주행할 때 전조등을 아래로 비추거나 경음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 밤에 교차로를 통과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위험하므로 낮보다 느린 속도로 통과한다.
▷ 뒤차의 불빛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룸미러를 조정한다.
▷ 미리 전조등·차폭 등을 켜고 타인에게 자신을 노출한다.
▷ 밤에는 신호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한다.

□ 뒷길(이면도로) 운전

▷ 항상 위험을 예상하면서 속도를 낮추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운전한다.
▷ 자동차나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서행 운전한다.
▷ 자전거, 보행자 등 위험 대상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여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는다.
▷ 특히 어린이들은 시야가 좁고 조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미처 보지 못하여 뜻밖의 장소에서 차 앞으로 뛰어드는 사례가 많으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 제동력 저하 현상

▷ 베이퍼 록(Vapor Lock) 현상
여름철 온도가 높을 때 긴 내리막길 등에서 풋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면 브레이크의 드럼과 라이닝이 과열되어 휠 실린더 등의 제동장치 오일 속에 기포가 생기며, 이에 따라 제동장치 페달을 밟아도 유압이 전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 페이드(Fade) 현상
고속 주행 중 내리막길 등에서 짧은 시간 안에 풋브레이크를 지나치게 사용해서 제동장치 라이닝이 과열되면 높은 온도 때문에 변질하여 마찰계수가 극히 작아져 미끄러지고 제동장치가 듣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 이러한 베이퍼 록과 페이드현상은 긴 내리막길 등에서 풋브레이크 보다는 엔진 제동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 스탠딩 웨이브(Standing Wave)현상

▷ 고속주행 때에 타이어의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으로 회전함에 따라 온도가 높아지고, 노면 접지부 바로 뒷부분이 물결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주름이 잡히다가 결국 파열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을수록 발생하기 쉬우므로, 고속주행 때에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10% 정도 높여야 한다.

자동차 점검과 응급조치요령

○ 핸들이 한쪽으로 쏠릴 때

- 한쪽 타이어의 공기가 새거나 휠 얼라인먼트(바퀴의 정렬)가 불량일 때에 잦으며 타이어 펑크도 한 원인이 된다.
- 이때는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거나 새것으로 교환해야 한다.

○ 타이어에 구멍이 났을 때

- 앞 타이어가 구멍(펑크) 나면 핸들이 펑크 난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며, 뒤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 좌우로 기우뚱거리며 헤엄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 기어 변속이 안 될 때

- 케이블식 클러치는 케이블이 끊겼거나 유격이 과다하기 때문이며, 유압식 클러치는 오일 부족 때문이거나 기름이 새서 압력 전달이 안 되기 때문이다.
- 기름이 새는 정도가 작으면 클러치 액(또는 브레이크액)을 보충하고, 두 번 클러치를 밟아주면 기어가 작동된다.

○ 시동이 안 걸릴 때

- 경음기를 눌러보고 그 소리가 작으면 축전지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전기가 다 나가 버렸으면 다른 차에서 지원을 받아 점프 시동을 건다.

○ 이상한 냄새가 날 때

- **고무 타는 냄새** : 전기 계통의 누전일 경우가 많으므로, 냄새가 나는 부위를 찾아 절연 고무테이프 등으로 감아 응급조치를 하고, 장시간 고속주행으로 타이어가 과열되었는가도 확인한다.
- **휘발유, LPG 냄새** : 엔진의 연료 계통 파이프 연결 부위 등에서 휘발유가 새지 않나 살펴보고, 강력 접착테이프로 감아 임시 조치한다.
- **달콤한 냄새** : 냉각수에 섞여 있는 부동액이 타는 냄새와 라디에이터에 연결된 고무호스의 파열 또는 연결 부위의 이완을 확인한다.

참고자료

각종예방활동상황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자연재난 예방활동

- **환경부, 재난대책 수립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12.1)
  - 과천청사에서 쓰나미·홍수 등 재난에 따른 환경피해 예방·극복을 위한 협력방안 등 토론
- **소방방재청, 폭설 대비 모의훈련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12.1)
  - 17개기관 17명, 상황대처 능력배양을 위한 도상 및 현장훈련 계획 논의·의견수렴
- **서울시·성동구, 상습 침수 성수동 일대 대형 하수도 설치**(12.1)
  - 내년5월까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노후 하수도를 폭·높이 각 3m로 확장 개량, 침수 해소
- **소방방재청,「아산시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검토회의」개최**(12.2)
  - 2일 이마빌딩에서 민간전문가 등 20명 참석, 거창군·아산시 풍수해저감계획 승인 검토
- **국토해양부,「Smart한 연안관리정보시스템」구축 추진**(12.2)
  - 연안기본도, 해안침수예상도 및 연안지도 등 2012년부터 특화된 연안포털 구축 예정
- **소방방재청,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12.3)
  - 주요내용 : 국고지원기준 개선, 피해액기준 상향, 소규모 복구비 국고지원 하한선 설정 등
- **국토해양부, 항만 내 방파제 보강공사 단계적으로 시행**(12.3)
  - 500억이하 65개소 포함 71개소는 년내 착수·17년까지 완료, 부산 조도 등은 '13년에 착수
- **소방방재청,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12.3)
  - 10일까지 개정 관련 의견조회(내용: 어려운 문장 쉽고 간결하게 바꿔 국민의 이해 제고 등)
- **소방방재청, 대설피해 대비 풍수해보험가입 촉진 지자체 점검**(12.6)
  - 12.5~16 기간 가입률 저조 시·군·구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실태 등 점검
- **소방방재청,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분석을 위한 중앙진단반 간담회 개최**(12.8)
  - 이마빌딩에서 민간전문가 20여명 참석,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과제 추진**(12.9)
  - 청 소관과제 53개(방재기준·도시방재 9, 시설투자 8, 대응·복구시스템 36) 추진

※ 총리주재「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보고회의에서 부처별 과제 최종 확정

- **소방방재청,「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일부 개정**(12.9)
  - 청 및 현장전문가 참여·검토근거 신설, 부적합 지구지정·변경 시 세부도면 첨부 신설 등
- **경찰청, 강설대비 교통소통 관리 및 사고예방활동 강화**(12.10)
  - 동절기 종료시까지 강설량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상습결빙지역 등 취약구간 선제적 관리

● **서울시, 폭설대비 SNS 모의훈련 실시**(12.10)

- SNS 서포터즈(천명)·자치구 등 SNS 담당자가 참여, 폭설소식 파악·대처 후 조치결과 통보

● **기상청·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상위성영상분야 MOU 체결**(12.14)

- 기상예보 고도화를 위해 IT기반 기상위성영상분야 기술협력·산업화 공동연구 등

● **소방방재청, 기습폭설 대비 유관부처 상황요원 합동훈련 실시**(12.15)

- 12.13~15 기간, 도로공사·경찰청 등 합동으로 폭설·정전 대비 초동대응 및 공조체제 점검

● **경찰청, 폭설 등 대비 시민안전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FTX 실시**(12.15)

- 고갯길 등 취약장소(93개)대상 인원 950명·장비187대 참여, 비상출동 등 준비태세 점검

● **소방방재청, 동일본 대지진 전문가그룹 회의 참석**(12.16)

- 12.16~18, 일본 내각부 주관, 한·중·일 회의 참석, 대지진 연구결과 공유 및 토의

● **소방방재청, 겨울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사항·주요시책 교육**(12.16)

- 청 22개 실·과·팀장 대상, 중대본 운영사항 및 겨울철 자연재난 주요시책 등 교육

● **소방방재청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산불예방 홍보방송 실시**(12.17)

- 경남 18개 시·군 65개소, 민방위경보장비를 활용하여 산불예방 홍보방송 2회 실시

● **국토해양부·기상청, 이중편파레이더를 이용한 겨울철 특별관측 실시**(12.17)

- 범정부적 레이더 자료 공동 활용 일환, 비슬산 이중편파 강우레이더를 겨울철 방재업무 활용

● **제주시, 자동적설관측시스템 3개소 설치**(12.17)

- 겨울철 재난상황을 실시간 감시 위해 사업비 8,300만원 투자, 성판악휴게소 등 3개소에 설치

● **소방방재청, 재난전담방송 추진관련 전문가 자문위원단 운영**(12.17)

- '11.12~'12년 상반기, 전문가 등 11명 구성, 재난방송 가이드마련 및 방송채널 확보 협력방안

● **충청남도, 동절기 '여름 호우피해 가구' 특별구호 실시**(12.21)

- 태풍 '무이파' 등 피해를 입은 78세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세대별 20만원씩 지원

● **전라북도, 재해예방사업 설계 및 조기추진단 가동**(12.21)

- 금년 12월부터 시·군 합동으로 조기 추진단 가동,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할 계획

● **기상청, 범국가적 기상관측자료 융합으로 기상재해 감시능력 강화**(12.21)

- 각 부처·유관기관에 산재된 기상관측자료 표준화 및 공동활용, 기상재해 감시·대응 능력 제고

● **국토해양부, 지진 대비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 마련**(12.22)

- 내진설계 제외 2층이하, 500㎡미만 건축물의 지진·적설·바람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소방방재청, 자연재난 대비 지자체 관계관 영상회의 개최**(12.23)

- 청·시도 20명, 중대본 영상회의시스템 시연 및 겨울철 재난대응훈련 성과 등 발표

● **소방방재청, '12년 풍수해보험 홍보 종합계획수립 추진**(12.23)

- 전광판·TV·라디오 등 매스미디어, 주민설명회 등 현장밀착 및 SNS 등 간접매체 활용

● **서울시, 대설·한파 특보 등 휴대폰 즉시 알림서비스 실시**(12.23)

- 대설·한파 등 정보를 무료 제공해주는 안전대표 앱인 '서울안전지킴이'를 23일부터 제공

● **경북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확대를 통한 방재대응능력 강화**(12.23)

- 김천 모암동 등 4개소에 406억원 예산 투입, '13년까지 마무리, 향후 확대 추진

● **소방방재청, 풍수해보험금 지급시기 단축 추진**(12.24)

- 풍수해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보험금 결정후 14일→7일 이내 지급으로 재산손해 신속 보상

● **경북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로 방재역량 강화**(12.24)

- 김천·영덕·청도 등 4개소에 406억원 투입 '13년까지 설치 마무리, 향후 설치사업 지속적 확대

● **전남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내년 163억 지원**(12.24)

- 한·미 FTA 등에 대비, 보험가입 품목 확대(30→35개)·유기농산물 보험료 지급 확대(80→100%) 등

인적재난 예방활동

● **소방방재청, 초고층특별법 시행 예정에 따른 교육실시**(12.1)

- 중앙청사에서 담당자 88명 대상 법제정 취지·사전재난영향성검토·종합방재실 설치 등 교육

● **국토해양부 해양안전심판원, 권역별 해양사고사례 설명회 개최**(12.1)

- 9일까지 권역(5개)별 해양수산종사자 대상 해양사고 원인·종류별 사고예방요령 등 교육

● **소방방재청, 「'12년 안전한국훈련」 국민 아이디어 수렴**(12.1)

- 12.1~11, 국민공감 및 참여형 훈련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홈페이지에 제출(우수자 시상)

● **행정안전부, '11년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추진상황 점검**(12.1)

- 12.1~14, 15개 시·도 주관, 사업추진·예산집행 실태, 제도개선 등(중앙점검 7~14)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12년 핵안보 정상회의 군 작전본부 운영**(12.1)

- 12.1~내년 3월, 육상·해상·공중 대비태세 확립, 유관기관 협조체계구축, 시범훈련 등

● **소방방재청, '12년 핵안보 정상회의 대비 행사장 안전점검**(12.2)

- 12.2~8, 1개반 6명, 회의장 등 행사장별 시설관련 취약요소 사전확인 및 개선

● **소방방재청, 「화재안전기준 입법예고 및 행정규칙」 정비**(12.2)

- 고층건물 화재기준개정안 입법예고(11.28~12.18) 및 다중이용업주 등 안전교육규정 개정 추진

● **행정안전부,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후사경 부착실태 조사**(12.2)

- 12.2~21, 12.1부터 설치 의무화된 9인승 이상 차량 부착현황을 지자체별로 조사

● **소방방재청, 재난심리지원 사례 발표대회 개최**(12.5)

- EAP협회·지자체 등 70명, 활동사례 발표 및 연합회 활동계획 협의, 심리지원기법 특강

● **소방방재청,「주간(12.4~10) 안전사고 위험지수」발표**(12.5)

- (화재)송년모임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는 어디? (산악)눈 덮인 겨울산, 아는 길도 헤메기 쉬워

● **소방방재청,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기지국 관리실태 점검**(12.5)

- 12.5~9, 16개소(운영센터 4·기지국 12), 2개반 5명, 기지국 운영·관리 및 보안·안전실태

●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출범 실무자 회의 개최**(12.5)

- 정부기관·방송사 9개기관, 협의회 위원 위촉 및 운영방안 논의, 재난방송컨퍼런스 설명

● **충남도, 겨울철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12.5)

- 12.6~16, 13개시·군 42개시설, 2개조 8명, 시설물 유지관리실태 및 안전성 등

●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동절기 대비 경인 아라뱃길 건설현장 등 안전점검**(12.6)

- 인천제2성모병원 및 경인 아라뱃길 건설현장 등 방문,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등 점검

● **국토해양부, 4대강 보 누수 등 세부점검 및 보수 추진**(12.6)

- 12.15일까지 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전문가와 합동으로 16개 보 대상, 점검 및 보수

● **경찰청, 전력난 예상에 따른 교통신호등 정전대비 FTX 실시**(12.6)

- 12.5~6기간 서초역 등 4회, 서울청·서울시 등 합동으로 제한정전 대비 대응체제 구축

● **소방방재청, 내수면 유도선 긴급대응체계 구축 R&D 관련 세미나 개최**(12.7)

- 대전 유성호텔에서 청 담당 ·연구개발 책임연구원 등 15여명 참석, R&D사업 분야별 토론·자문

● **행정안전부,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추진상황 점검**(12.7)

- 14일까지 15개 시도 관련사업(4개 분야) 추진실태 전반 및 제도개선사항 등 점검

● **지식경제부,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추진**(12.7)

- 납·카드뮴 등 사용 제한하는 '어린이용 공산품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 '12.1월 시행

● **교육과학기술부, 초·중·고등학교 석면 안전관리 강화 추진**(12.7)

- 학교 건물 석면 실태점검, 석면지도 작성·관리, 3년마다 정기조사 등 종합대책 마련

● **소방방재청, 화재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회의 개최**(12.8)

- 시·도 방호과장(17명), 재발방지 방안 논의 및 소방차량 진로양보위반 단속추진 설명

● **국립환경과학원, 핵안보정상회의 대비 화학사고 대응기술·시스템 교육**(12.8)

- 12.8~23, 6개권역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 **제주도, 해난사고 희생자 반줄이기 운동 추진**(12.9)

- '15년까지 정부예산 45천만원 투자, 농림부·수협과 합동으로 어선선장 대상 안전교육 등 실시

● **국토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예부선 선원 순회교육 실시**(12.10)

- 내년 2월까지, 100명, 안전운항 능력향상을 위한 계류지별(6개소) 안전교육 실시

● **소방방재청,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정비·조사 실시**(12.11)

- 12.11~30, 시설장비 최적상태 유지를 위해 대피·급수시설 및 장비 대상 시·도 자체 실시

● **소방방재청, 2011년 민방위대 특별검열 실시**(12.12)

- 12.12~16 기간 16개 시도 직장민방위대 대상으로 민방위대 편성, 시설, 장비 및 훈련 등 검열

● **소방방재청, 스마트 재난안전교육 포털 개발 추진**(12.12)

- 12.1~30 기간 스마트폰 용 재난교육포털 서비스 등 모바일 홈페이지(m.portal.cdi.go.kr) 구축 추진

● **소방방재청, 「주간(12.11~17) 안전사고 위험지수」 발표**(12.12)

- (화재) 재미로 한 어린이 불장난, 우리집 다~태워!, 겨울방학 전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

● **농림수산식품부, 인삼 등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추가**(12.12)

- 2012년부터 인삼·파프리카 등 5개 품목을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대상품목에 추가

● **행정안전부,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현대화 사업 확인 점검**(12.12)

- 16일까지 점검반(3명) 운영,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42개소) 공사 진행상황 확인 및 사업추진 독려

● **국토해양부, 대규모 해양오염 대비 매뉴얼 정비**(12.12)

- 대표적 복합재난인 해양오염사고의 유형별·단계별 대응을 구체적·세부적 제시, 초기대응태세 강화

●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화생방용 간이대피시설 현장점검**(12.13)

- 신금호역 등 2개소에 설치된 화생방용 간이대피 시범시설(Test-Bed) 방호능력 점검

● **소방방재청, 「재난안전네트워크 행동지침 개발」 설명회 개최**(12.13)

- 20명, 행동지침 개발 연구개요 설명, 자원봉사운영 사례발표 및 종합토론

● **소방방재청, 지하철 운영기관 재난안전관리 실무회의 개최**(12.14)

- 10개기관, '11년 하반기 지하철 비상대응 자체훈련결과 평가 및 개선방향 협의 등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이용기관 실무회의 개최**(12.14)

- 23개기관, 재난안전통신망 추진현황 및 추진협의회 회의결과 설명, 현안사항 토의

● **행정안전부, 「승강기 갇힘시 대응요령」 영상물 광고**(12.15)

- 12.15~21 기간 KBS 한국방송, 승강기 갇힘시 행동요령(40초 분량 동영상) 광고

● **국토해양부, 헬기 등 소형항공기 안전증진 워크숍 개최**(12.15)

- 김포공항에서 항공기 안전관리담당자 등 50여명 참석, 소형항공기 안전증진방안 토의

● **부산 금정구, 부산 첫 CCTV 통합관제 구축**(12.15)

- 재난감시·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대비 400여대의 CCTV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준공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문화 발전대회' 개최**(12.15)

-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도로·철도·항공·해양 교통안전 선진화 및 교통문화 발전 방안 토론

● **지식경제부,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 본격 시행**(12.15)

- 전력난 극복을 위한 난방기 에너지 비용 표시제 시행, 겨울철 전력수요 최소화·정전사고 예방

● **소방방재청, 재난안전네트워크 매뉴얼 개발연구 최종보고회 개최**(12.16)

- 재난발생부터 복구까지의 재난안전네트워크 행동요령 매뉴얼화 추진실적 심의·토의

● **경찰청, 고속도로 사고대응 응급의료 전용헬기 합동훈련 실시**(12.16)

- 5개기관 40명(장비 10대), 사고현장의 응급헬기 착륙 가능·불가능 상황대응 이송훈련

● **한국전력, 전력 수급 위기 대응 모의 훈련 실시**(12.16)

- 전국 사업소, 수요관리 시행사항 실시간 점검 및 광역 정전 가정 모의 복구훈련

● **해경청, 민간인으로 '특수구조대테러단' 신설**(12.17)

- 해난사고 발생시 수색과 인명구조 위해 '해양구조협회'와 '특수구조대테러단' 내년 신설

● **소방방재청, 「주간(12.18~12.24)안전사고위험지수」 발표**(12.18)

- **(화재)** 성탄장식, 꼬인 전선은 펴고 손상된건 바꾸고… 겨울철 화재 예방요령 등 홍보

● **소방방재청,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이용기관 설명회 개최**(12.19)

- 중앙청사에서 이용기관 사용자 150여명 대상, 기관간 공동활용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등 설명

● **경북도, 동절기 눈썰매장 등 레저시설 안전점검 실시**(12.19)

- 28일까지 눈썰매장·빙상장 등 9개소 대상, 시설운영기준·안전시설 설치여부 등 점검

● **지식경제부, 발전소 및 전력계통 특별조사 및 점검 실시**(12.19)

- 12.19~30, 유관기관 합동, 한전·발전회사 설비운영·유지보수 조사 및 원전 특별점검

●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시민안전 등 가이드라인 마련**(12.19)

- 시민 보행·운전 안전을 위해 보행로 및 통행차로 확보 등 9개 항목 개선방안 마련

● **대전시,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실시**(12.19)

- 12.19~23, 판매시설 등 11개소, 6명, 대피시설 확보 및 기능유지, 안전기준 준수 등

● **소방방재청, 「고속철도 대형사고」 대비 훈련 사전 회의**(12.20)

- 국토부 등 8개기관 20명, 훈련계획 설명, 진행방법 토의(훈련 : '12.1.17, 14개기관 합동)

● **소방방재청, 테러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테러대응태세 강화 지시**(12.21)

- 민방위 대테러대응태세 확립, 화생방오염대비 비상급수대책수립 등 테러대비태세 강화

● **국토해양부, 전국 지하시설물 자동갱신시스템 구축 추진**(12.21)

- 전국 82개 市 대상, 상·하수도 관로 등 7대 지하시설물 정보 자동갱신시스템 확산 완료

● **인천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강화**(12.21)

- 연내 기초생활수급자 2,175가구 대상, 안전점검 및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 14,400개 설치 완료

● **소방방재청,「국가재난안전센터」구축사업 완료보고회 개최**(12.22)

- 중앙청사에서 청장 등 15명 참석, 재난정보제공 스마트폰 '앱' 주요기능 설명 및 시연

● **교육과학기술부, 러 위성 추락 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 추진**(12.22)

- '12.1.6~19일 추락예상, 1주전 상황실 설치·운영, 유관기관 비상연락체제 구축 등

● **소방방재청,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회의 개최**(12.23)

- 국토부 등 시범운영 5개부처, 시스템구축 추진배경 설명 및 시연, 교육일정 협의

● **소방방재청, 중앙안전점검단 설치·운영규정 일부개정 추진**(12.24)

- 주요내용 : 점검단 구성을 개인에서 기관·단체로 전환, 재난발생 원인조사 기능 추가 등

소방 예방활동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정책자문회의 개최**(12.1)

- 중앙청사에서 청장·자문위원 9명 등 참석, 소방산업 발전전략·정책방향 설정 논의

● **소방방재청, 소방신제품 설명회 개최**(12.1)

- 11.30~12.1 중앙소방학교에서 구조구급·피난설비 등 19건 소방신제품 대상 제품별 평가 실시

● **경기 2소방본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12.2)

-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장소 대상, 안전점검·소방안전교육 및 한파·폭설대책 추진

● **소방방재청장, 기온강하에 따른 24시간 출동태세 확립 특별 지시**(12.2)

-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태세 확립, 출동차량·제설장비 등 월동장비 점검 및 상황발생시 즉시 보고

● **소방방재청, 겨울방학기간 중 가족단위 안전교실 운영**(12.3)

- '11.12월~'12.2월까지 월2회 이상 소방홍보전시관·장비견학 등 소방관서 체험교실 등 운영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진압·인명구조 전문 자격인증제 도입**(12.3)

- 8일까지 경기도 소방학교 소방사반 211명 대상, 제8회 화재진화사 2급 자격시험 실시

● **소방방재청, 무인방수로봇 배치에 따른 사용자교육 실시**(12.6)

- 중앙소방학교에서 배치기관별 담당 등 30여명 참석, 조종방법 및 돌발상황시 대처 등 교육

●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점검**(12.6)

- '11.12~'12.2월까지 소방·가스 등 합동, 325개 전통시장 63,000 점포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

● **경기소방본부, 통합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추진**(12.7)

- '12년말까지 도내 34개 소방상황실 통합,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대형사고 대처 강화

● **국토해양부, 국가 위험물 안전관리 정보전략 수립사업 최종보고회 개최**(12.7)

- 국토부 등 15개기관 19명 참석, 위험물질 취급·운송업체 서비스 강화 등 사업추진결과 보고

● **정부, '119와 1339' 이원 응급의료체계 119로 통합**(12.9)

- 총리주재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1339(복지부 소관)업무 소방방재청 이관, 응급의료체계 개선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차량 정비창' 신설 추진**(12.9)

- '13년까지 경기소방학교에 3층 규모 정비창 건립, 정비사 17명 배치해 소방차량 정비·점검

● **소방방재청, '12년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12.9)

- 정부청사에서 시·도본부 담당 등 30여명 참석,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사업설명 및 개선대책 토의

● **소방방재청, 선진형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연수 실시**(12.11)

- 12.11~19, 미국 뉴욕소방본부 등 5개기관 방문, 구조대원 훈련·교육프로그램 등

● **서울도시철도공사, 119합동 시범훈련 실시**(12.12)

- 12.12~15 기간 기관사 등 80여명 참여, 지하철 안전사고 대비한 119 합동 시범훈련 실시

● **제주소방방재본부, 성탄절·연말연시 특별소방검사 실시**(12.12)

- 23일까지 교회·영화상영관 등 화재 취약시설 대상,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방화시설 등 점검

●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 「혹한기 산악인명 구조훈련」 실시**(12.13)

- 16일까지 포천6사단 훈련장, 96명·차량5대 동원, 혹한기 야지적응 및 수색·구조 훈련 실시

● **소방방재청·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간 MOU 체결**(12.15)

- 정부청사에서 소방방재청장, HAM 이사장 등 20여명 참석, 비상대비 재난통신망 활용 협약체결

● **소방방재청장, 화재피해 사망자 저감대책 마련 특별지시**(12.15)

- 소방관서장 중심 초기현장대응 및 출동장비 100% 가동, 주택화재사망자 줄이기 정책 추진 등

● **경기소방재난본부, 소방관서장 회의 개최**(12.16)

- 대회의실에서 소방관서장 34명 참석, 안전사고 재발방지 및 동절기 화재예방 대책 등 심층 토의

● **소방방재청, 대통령 해외순방 특별경계근무 실시**(12.17)

- 12.17~18, 전국 207개 소방관서(인력 134천명·장비 7,598대), 초동조치 및 광역출동 태세 확립, 화재취약대상 집중감시 강화, 119구조·구급대 출동태세 확립 등

● **소방방재청, 재해지도 연계·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12.20)

- 산림과학원 등 6개기관 10명, 재해지도 연계·활용방안 모색, 실무협조체계 구축 논의

● **소방방재청, 민방위 대피체계개선 연구지원단 토론회 개최**(12.20)

- 정부중앙청사에서 연구지원단 등 20여명 참석, 민방위 대피체계 개선관련 토론

● **경북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특별교육**(12.21)

-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시설종사자(4백명) 대상, 화재원인 및 신고·대피요령 등 교육

● **중앙119구조단, 출동장비 최적화 추진**(12.21)

- 30일까지 전체 장비(401종, 5,443점) 중 내용연수 초과·노후장비 재분류, 장비관리 효율성 제고

● **울산시, 겨울철 화재 대비 폐기물처리업체 화재예방 점검**(12.22)

- 12.30일까지, 14개소, 소방장비 설치여부, 폐기물보관장 화재예방 조치여부 등

●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 첨단인명탐색장비 적응훈련 실시**(12.23)

- 서울안전체험관에서 구조단 6명 참여, 여진탐지기 신규도입에 따른 장비운용능력 숙달

● **소방방재청, 전국 소방관서 성탄절 특별경계근무 실시**(12.24)

- 12.24~26기간 전국 소방관서 대상, 관서장 정위치 근무, 초기대응체제 구축 등 특별근무 실시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인 쇄 : 2011년 12월

발 행 : 2011년 12월

발행처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전 화 : 02)2100-5034

팩 스 : 02)2100-5039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11호

인쇄처 : 삼진기획 02)720-4743~6

≪ 비 매 품 ≫